



■ 태극전사 23명 발표 '명암'

■ '베스트 11' 누굴까?

송종국 '합류'... 차두리 '탈락' 박지성 등 해외파 주전 보장

플키퍼 김병지 예비명단에

송종국(수원)과 백지훈(서울)이 최종 엔트리에 포함됐고 차두리(프랑크푸르트)는 탈락했다.

또 안정환(뉘스부르크)과 골키퍼 김용대(성남)도 독일행 아드보카트호에 승선했다.

덕 아드보카트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11일 오후 서대문구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2006 독일월드컵 축구대회 본선에 출전할 국가대표팀 최종 엔트리 23명을 직접 발표했다.

안정환,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영표(토트넘), 설기현(울버햄프턴), 이을용(트라브존스포르) 등 유럽과 태극전사 6명 중 5명이 탑승했고 차두리는 제외됐다. 골키퍼에는 2002년 한일월드컵부터 부동의 대표팀 수문장으로 활약한 이운재(수원)와 올림픽 대표 출신 김영광(전남)이 이름을 올렸다.

또 예상을 뒤엎고 김용대(성남)가 골키퍼 3명 중 한 명으로 선발됐다. 김병지(서울)는 제외됐다.

중앙 수비수에는 한일월드컵 4강 경험을 지닌 '월드 오브 맨' 최진철(전북)이 중심을 잡은 가운데 3리가 짧은 피 김진규(이와타)와 성남의 K-리그 우승을 이끈 김영철, 김상식(이상 성남)이 선발됐다.

왼쪽 윙백에는 프리미어리그 이영표와 김동진(서울)이 예상대로 선발됐고 오른쪽 윙백에는 조원희(수원)가 뽑혔다.

선발 여부를 놓고 초미의 관심이 쏠렸던 송종국은 아드보카트 감독의 고심 끝에 독일 입성에 성공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차두리와 송종국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주역 중 한 명인 송종국의 경험을 높이 평가해 힘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차두리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자주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다 최근 폼을 터뜨리는 등 나름대로 활약했으나 끝내 눈물을 삼켰다.

공격형 미드필더에는 박지성과 김두현(성남)이 예상대로 승선했다.

차두리-송종국의 경험과 함께 관심을 모았던 남은 미드필더 한 자리에는 지난 1월과 2월 해외 전지훈련에서 아드보카트 감독의 두터운 신임을 받은 백지훈이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3리가 김정우(나고야)는 막판까지 경험했으나 아깝게 밀렸다.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김남일(수원), 이을용, 이호(울산)가 각각 선발됐다. 중앙 공격수로는 이동국(포항)의 무릎 수술로 원톱 요원이 부족한 가운데 3리가 조재진(시미즈)과 안정환이 동반 탑승했다. 윙포워드에는 박주영(서울), 이천수(울산)가 무난하게 선발된 가운데 최근 소속 리그에 자주 등장했던 설기현과 정경호(광주)도 이름을 올렸다.

최종 엔트리 23명 가운데 2002년 한일월드컵 경험이 있는 태극전사는 이운재, 최진철, 이영표, 박지성, 김남일, 이을용, 안정환, 이천수, 설기현, 송종국 등 모두 10명이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또 김병지, 유경철(울산), 김정우, 장학영(성남), 차두리 등 5명을 예비 명단으로 발표했다.

예비 명단은 최종 엔트리에 포함된 선수가 부상 등으로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불가피한 교체를 위해 필요한 선수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엔트리 제출 이후에도 부상이 명백할 경우 본선 조별리그 첫 경기 24시간 전까지 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006독일월드컵 축구대회에 출전할 23명의 태극전사들이 11일 덕 아드보카트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은 가운데 본선 조별리그에서 활약하게 될 '베스트 11'의 영광을 누가 차지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골키퍼 3명을 포함해 각 포지션별로 2명씩 경쟁구도로 짜여진 이번 최종엔트리는 독일행의 '1차 관문'인 본선 조별리그에서 활약하게 될 '베스트 11'의 영광을 누가 차지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때문에 본선 조별리그 첫 경기인 토고전(6월13일 오후10시)까지 남은 30여일 동안 태극전사들은 코칭스태프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할 뿐 아니라 재앙과도 같은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물관리를 해야 하는 속세도 떠안게 됐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국내에서 펼쳐지는 세네갈(23일) 및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26일)전을 통해 23명의 선수들을 골고루 기용하면서 베스트 11의 '육석'을 가릴 것으로 보인다. 월드컵 본선 경기를 코앞에 두고 마지막의 평가전은 대표팀의 최종전술과 세트플레이를 완성시키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일제감치 베스트 11 및 교체멤버들의 윤곽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성과 이영표, 이을용 등 해외파 선수들은 대부분 기량면에서 같은 포지션의 경쟁선수들을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최종 전지훈련에서 부상당 당하지 않는다면 주전 자리를 보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남은 평가전서 가려질 듯



Advertisement for '시몬스침대' (Simons Bed) featuring various bed models and promotional text. The headline is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침대'.

Advertisement for '토치 광주총판' (Torch Guangju General Dealer) featuring office chairs and desks. The headline is '사무용의자 전문생산업체 토치 광주총판'.